



제출된 논문/공표  
제출된 논문

논문 심사/공표

음

민지의 목적구,

음기

수변관리법 제 10조

아

수변관리법 제 10조

음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민지

대항권,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공민권

민지의 목적구,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수변관리법 제 10조

민지

같은 함수와 같은 수형선수인 역함수 지형.  
어떤 것이 바다가 죽을 때 바다가 죽고 있다.

4. 부등가 린

함수  
공치  
이제 수형 안해웃! 기껏해야 아서야 최고 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함의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에 대해) 아예 새끼!

함수는 쌍곡대대 물안경이랑 같은 내용임이치며 함의 역함수 같다.

공치  
함수 좋아! 이대로라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은 문제없을 꺼다.

공치가 기록을 보며 흐뭇해 한다.  
같은 수를 비롯한 수형선수들이 물안경을 가르고 있다. 같은 수가 막 걸승점에 도달한다.

3. 학교 수영장

수영장만 dis~  
해변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바다로 일제히 물결이 밀려가 빠른 속도로 헤엄을 친다.  
고무부트에 물라 있는 박코치, 바다 위에서 흐락을 물면

평평 소리와 함께 선수들의 고개가 확 돌아간다. 함수의 형용도 보인다.  
형용도 서 있는 선수들을 박코치가 빠른 란리고 있다.  
형용도 앞으로 있는 선수들을 박코치가 야구 방망이로 구타하고 있다.

파라하 아래서 선글라스를 낀 박코치가 이들을 보고 있다.  
편티만 입은 채 비지명을 둘러면서 런닝하는 한 무리의 학생들.

2. 바닷가 해변 (박)

9조. 주기로 빛을 쏘아대는 무인 등대.  
바닷가 한 가운데 솟아난 작은 섬에 하얀 등대가 보인다.  
빛의 한 가운데 있던 카메라 옆으로 비껴서며 쪽-빠지면,  
그 빛 조금씩 강해지더니 카메라를 덮치고 더 멀리 뻗어 나간다.  
서서히 밝아오는 풀라멘트

1. 바닷가 (박)





수출권의 공이 원하고 환수는 출자 부담이다. dis  
출자 기대리는 환수.

11. 별원 (반)

환수는 피투자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10. 환수의 원 (아원)

대중 원리된 법  
환수는 아직 국외에 남아있는 국외 자금을 환국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 아버지 주소 -  
네게 원할지 몰라서 너의 아버지 주소를 모른다.  
영어를 이해해 주렴.  
사랑하는 환수, 미안해  
부끄러웠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 엄마는, 그냥... 허무했다.

환수는 유언장을 읽는다.  
어뢰리진 카드 독촉장, 원고는 국외 환수... 유언장...  
환수는 법에 들어선다.  
바닷가 원정원 아줌마를 낚은 당을 잊은 원정... 원정...

9. 환수의 원 (반)

의사는 MRI 촬영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고 환수는 차트에 서명한다.

한수를 때리던 영환과 지영이 무릎 꿇고 있다.

한수가 돌핀 선수인 영환과 지영에게 열라 맞고 있다.  
뿔던 한수가 영마간 저항하다가 다시 맞고 그런 사이 뿔 뿔 되돌아온다.

15. 학교 체육관 뒤.

한수는 인사하고 나간다.  
서로 짝 맞춰 돌핀 한수가 나가자마자 선수들을 형들여하며 뛰어선다.

한수  
최속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수들은 형들여 쫓겨간다.  
그런 한수를 꼬치는 지켜본다.

한수는 머뭇거리다.  
한수는 친구들을 잠시 본다. 발근 함께 들어온 지영도 단체기함에 말없이 항복한다.

박코치  
한수 이리와 (한수 다가오면)  
나가 다시 한다고 할 때까지 재들은 저러고 있는 거다

지영에 이끌려 한수가 수영장 문을 열고 들어선다.  
수영선수들이 물이 빠진 수영장에서 단체 기함을 받고 밖에 코치가 서 있다.

14. 학교 수영장 (낮)

수출을 문년 영마의 횡대가 중화자수로 옮겨진다.  
중화자수 문이 닫히고 또 다시 한수는 혼자 남겨진다.

13. 중화자수 문

insert - 영마의 뇌 컴퓨터 단층 촬영 화면들...

한수가 혼자 오락을 하고 있다.  
몸중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다.

12. P.C방=피시방=FISH방

의사 : (환자를 보며) 별다른 거 없죠?  
간병인 : 네...  
의사 : (이상한 기계 숫자를 보며) 호흡기 변경도 되겠네. (호흡기를 벗기며) 가스  
포 속서는 연속을 해야 되니까 양호할 땐 떼내요

의사가 간호사와 간담을 나누고 있다.  
간담을 나누는 동안 환자가 일어나고 있다. 간담이 끝나고 있다.  
환자가 일어나고 있다. 간담을 나누고 있다. 간담이 끝나고 있다.

18. 병원 (밤)

환자 1 : 엄마가 잠든가부네...  
간수 : 고개를 숙인다.  
환자 1 : 아기가 아픈데?  
간수 : 환자가 다가온다.  
환자가 다가오면 환자를 데리고 간다.  
환자는 최치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엄마의 환대를 찾아가 자르므로 이동시킨다.  
환자의 엄마가 환자를 데리고 간다.  
환자의 엄마가 환자를 데리고 간다.

17. 병원

환자가 환자를 데리고 간다.  
환자는 간호사와 함께 환대를 이동시키고 있다.

16. 병원 (낮)

간수 : 환수가 좀 봐주라. 너 우리 환자를 데리고 간다. 너 우리 환자가 우리도 물어간다.  
응? 내가 시키는 데 모든 환자를 데리고 간다. 너 우리 환자가 물어간다.



박근치  
응  
박근치?

그러면...  
자퇴하겠어요?  
왜요?

박근치가 응응응 대답하고 창가 쪽으로 간다.

근치

선생님 상관만...

지켜두고 있던 박근치가 한수에게 묻는다.

응

그냥이 어딤이...  
그냥...  
해?

한수

...

응

?

한수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응

너 원은 건 아니데 간혹인도 구해다면서 왜 자퇴해?

한수가 응응응 대답한다.

### 21. 학교 피우신

한수는 임부님 숙도를 조정하여 위에서 권는다.  
한수의 보복으로 금방 추월할 듯 가까이 가지만  
조금 앞에 우인희 선생이 출근하고 있다.  
한수가 대공을 열고 나온다.

### 20. 한수의 진 료

전화를 끊고 나가는 미진을 본다.  
한수는 창 밖으로 미진이 어떤 부자와 만나는 장면을 본다.  
미진과 어떤 부자는 반가워하며 별원을 나서고 있다.

미진

왜 왔어요... .. 응, 지은 나랑게요.

한수는 커피를 사이로 향어나는 미진을 보고 있다. 미진은 창 밖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다.

미진

(장간) 여보세요? ..... 하~ 자고 있었어. 지은 옆 시어요? ..... 잠만?  
..... 거짓말! ..... 어디...



인회가 되고 있다고 있다.  
저항에 한수가 있고 있다.

28. 한수의 진 문복 (저녁)

한수는 여러모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서클상으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27. 사회복지과 사무학

원무과직원      자살은 건강보험적용이 안돼. 어떻게 보험비 면 환원이 되나?  
17일까지 중간량제 해야 되는데, ... 지하에 사회복지과가 있거든.  
환를 면 상단 한 번 받아 볼래?

한수는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중간 량제 면세서를 받는다. 꽤 큰 돈이다.

26. 병원 원무과 (낮)

적막한 복도를 걷던 한수는 복도 계단에서 울고 있는 미진을 본다.  
미진이 가까이 온 한수를 알아채고는 계단을 내려간다.

25. 병원 복도

미진은 커피를 찾는다.

미진      복음 시키려고...

미진이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들어온다.  
영마의 옷을 벗기더니 문득 그쪽을 보고 있는 한수를 보고..

한수는 미진이 건네는 응료수를 건네받는다.  
어느새 미진이 와 있다.

미진      응료수 하나 마시래?

영마, .. 영전에 이사왔다. (양철이다가) 아직 인사는 제대로 못했는데..  
거기 어중마 영마보다 이쁘다. 싶나지?  
응료수 하나 마시래?



아이를 한수를 본다. 한수는 쾌면적어 한다.

답임                      한수! 엄마 좀 어머시니?

공동장애선 바람이 부는 지 하얀 비닐 봉지 하나가 허공에 동동 떠다니고 있다.  
아이를 볼멘소리를 낸다. 한수 관심이 없는 듯 창밖만 바라본다.

답임                      방학인데 우리 방학이 없지. 일주일만 쉬고 모중수업 받음 때 보지.

황판에 <방학>이라고 쓰여 있다.

37. 학교 교실 (날)

음대는 9조 주기로 빛을 내고 있다.

36. 비오는 음대 (밤)

한수는 엄마 옆 보호자용 침대에서 스타킹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양치실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진을 보고는 영을 주머니에 감춘다.  
미진이 한수를 보고 웃어준다. 미진은 가능 한 엄마의 소변병을 들고 나간다.  
비가 유리창을 때린다. 유리창 밖으로 비에 영겨 보이는 빨간 비공.

35. 별친

섹스 원장에서 두리번거리던 한수는 여자 스타킹을 발견한다.

34. 병원 뒤 편.

로비 의자에 한수는 앉아 있다. 한수 앞으로 지나가던 미진이 한수와 눈이 마주친다.

33. 병원 로비

한수는 병원을 들어서다가 병원 뒷 건물 어둠으로 사라지는 미진을 본다.  
한수도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  
미진은 벽에 기대 바지를 내린 채로 하얀 하복지로 넘쳐난 아래를 강고선  
섹스를 하고 있다. 한수는 지켜본다.

다른 인부를 과하게 채워서 먹고 있는 한수. 한수를 기용이던 인부가 한수에게 돈을 내었다.

43. 환바진

한수는 하역장에서 용건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

42. 부두 하역장

한수는 마뽀함에 물통을 반쯤 채워놓고 안을 훑고 있다. 인희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 만지를 쓴 한수가 물통을 빼 버린다.

41. 한수의 집 마당 (낮)

한수            엄마 보석상자 뚫은 거 얘기 안 했네.  
...나도 그런 거 없었나? ... 나 어릴 적에 보석상자 뚫은 거 없었나?  
...  
엄마, 기억 안나나?

다시 한수는 엄마에게 이야기한다.

40. 병원 (밤)

한수는 인희의 팬티를 자리에 두르고 자위를 한다.

39. 한수의 방

바람이 몹시 불다. 한수가 창으로 틀어간다. 마당에 떨어진 여자 팬티, 풍선 마당엔 빨래가 널려 있다. 한수는 팬티를 가지고 틀어간다.

38. 집 근처 운동

00고등학교 다니죠? 나는 00여고 음악선생님이예요.  
할거예요. 그래도 다행이네. 반학해서...

인희

네

한수

엄마가 아포사다면서요. 품 전 아주머니한테 있었어요.

인희

인희가 먼저 말을 건다.

한수가기도 뭐하지기도 이상한 상황.

좋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걷는다.

클락에서 한수는 우인희와 마주친다.

46. 집 근처 콧물. (낮)

한수는 전사없이 콧물을 부수고는 돈을 받아 도망친다.

인희를 들고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간다.

머리에 쓰고 있던 복면을 내린다. 미진익의 스타킹이다.

편의점 앞에 앉아 있는 한수는 하나, 둘, 셋을 세고

45. 편의점 (밤)

소리치는 신장을 워포하고 가는 한수.

떨어지던 신장은 겨우 특어진 반쯤을 잡고 대충대충 매달려 있다.

워포아 라는 신장을 보던 한수는 탄력이 바닷물 떨어진다.

(워포아서 가다가) 뽀 또 나와라

신장 너 자꾸 피병 피우니까 그것밖에 못 존 거야. 것도 많이 쳐준 거지

한수 5만원 준다고 했는데오

신장 왜?

돈을 받은 한수는 의아하게 신장 옆을 본다.

한수는 신장에게 돈을 받는다.

44. 부두 하역장 (저녁)

인부1

원 전원이 해. 하루에 다 끝내고 뽀 운환거야? 어서 쪽 마셔...

한수 안하이다 잔 만 받아 놓는다.

인부1

한 잔 해! 보약이야 보약.

함수는 최대 커트를 가진다.  
 임마의 뜻을 벗기는 함수, 임마의 양방이 그대로 들어간다.  
 함수는 수면에 물고 적셔 임마를 상체를 벗는다.  
 임마의 상체를 다 벗은 함수는 잠시 망한다.  
 임마가 펴고 있던 이들을 저지러하게 드러나는 조면종이 끼여진 하체.  
 임마의 그곳 위에 함수면 한 장이 얹혀 있다.

51. 범주

미진영 원가 사각형 원본은 그윽 지나친다.

함수 임마 복음시키려고

세숫대야를 들고 오던 함수는 미진과 마주친다.

50. 범원 복도

함수는 세숫대야에 물을 받고 있다.

49. 범원 화장실 (범)

텀블 하나 쿨린 팬티를 보고 있는 인회.

48. 인회네 마담 (냥)

함수는 마담에서 서서거리며 인회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다.  
 함수는 결성한 듯 물래 인회의 잔 담을 벗는다.  
 뛰어 내릴 창라 멈추는 음악소리, 함수도 멈추고 몸을 낮춘다. 다시 시작되는 피아노 연주.  
 함수는 인회네 마담으로 들어가 뿔랫중에 인회의 팬티를 벗어놓는다.  
 텀블 하나 쿨린 팬티 하나 쿨린 뿔랫중.

47. 함수의 잔 (냥)

함수는 인회의 미소가 맘에 든다.

문장을 사이에 두고 함수와 영인회가 마주 서 있다.

56. 전 마담 (낙)

함수는 돌아선다.  
몸을 소리를... 지나가니 큰 몸소개를,  
함수는 장례식 준비에서 돌고리미 장례식 풍경을 보고 있다.

55. 병원 장례식장 입구

보고 있는 함수.  
양편 창대가 비어있고 미처 치우지 못한 어항에선 금붕어 두 마리가 보고 있다.

54. 병원 (낙)

5골... 10골이 흘렀을까... 미진은 다시 장계를 떼어내고 창 밖으로 버린다.  
공중이 미진의 창대 쪽으로 흐르자 못하듯 뿔뿔이 막는다.  
함수의 몸은 뻗는다. 함수는 공중을 지린다.  
미진은 창계로 그늘의 어머니께 운근하는 산소호흡기의 호스를 잡는다.  
미진은 조차스런게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미진은 백에서 뺨가를 꺼낸다. 그것도 창계다.  
함수는 창계로 또 고 미진을 본다.  
미진은 산 채로 영마를 돌고리미 보고 있다.  
병원 몸이 형리고 미진이 돌아온다.  
병원 안은 어둡고 적막하다.  
함수는 간헐인 창대에 누워 있다. 창이 옅어진다.

53. 병원

몸을 내리자 변기의 끝이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아래로 빠져나간다.  
함수가 영마의 소변팬에 담긴 소변을 변기에 버리고 있다.

52. 화장실

함수는 간수건을 피해 영마의 하체를 뒤는다.



64. 바다 (밖)

따뜻한 오후... 한수는 등장에 기대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있다.

63. 한수의 친구 마담

인희는 거실에서 피아노를 친다.

62. 인희네 거실

인희 (한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 안 돼.  
한수 (간헐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소리를 듣고 씩 웃어)

한수가 인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애쓰고 있다.

인희 ...그럼...

한수 서둘러 관계 좋아할까?

인희 ...그럼...

한수 두편과 세수를 하나요?

한수는 인희의 허벅지에 손을 얹는다.

한수 아니요 그럼...

인희 어떤 일을 겪었는데...

한수 ...

인희 그런 건 여자워나 또들겠어라고 하지.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한수 그런 게 있나요?

한수 하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보거나 옛날에 겪었던 일을 또 보게 되는

한수는 이렇더마 위에 기대 누워 있고 인희는 앉아 있다.

인희와 한수는 함께 있다.

61. 또 한수의 밖 (밖)

한수가 물 속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물속을 바다에 뛰어들려 애기가 물고 있던 곳이다.













인회와 함께, 인지가 없다.  
 누수가 한수에게에 주를 띠다. 한수는 특히 쉬어준다.  
 곧 한수가 이를 물리려는데...  
 한수는 머슴을 거두려다 한수에게서 한수에게 쉬어준다.  
 한수에게 쉬어준다.

86. 한수, 인회와 전 (만)

인회	한수가 이거 찾아 주래
한수	네 누군데
인회	인지, 우리 엄마 아빠를, 공작원에 있다가 장관을 둘러가야
한수	어디 아파?
인회	(머리를 가리킨다) 머리가... 약간 아프잖아.

인지가 한수가 인회와 함께 쉬어준다.

85. 한수의 전 (만)

5분, 10분이 흘렀을까 미진이 한수에게로 돌아왔다.  
 - 미진이 엄마의 사소호흡기 관을 점검하고 있다.  
 고개를 미진이 앞을 향해 돌린다.  
 엄마를 보고 있는 한수

84. 범후 (만)

거실에서 한수 또래의 인지가 나온다.  
 동그렇게 앉아 고기를 먹는 인회네 가족.  
 한수는 한자가 누대 용을 소리낸다. 인회가 웃으라는 듯이,  
 아무 반응 없이 이번엔 애국가를 끝 소리 끝 부른다.  
 역시 인회에겐 아무 반응 없다. 한수는 일어나 나간다.  
 나가면서 한수는 한수에게 소리내어 대공을 부른다.  
 인회는 한수를 뽀뽀한다, 감정이 섞인 소리를 들으며 인회네도  
 작은 반응 하나 없다.

인회 인지가 옆을 나와~

인회네 한수 엄마 옆에 와서 한수가 고개를 숙고 있다.



원인 판별되지, 영혼이 죄에 죽어간다.

60. 환수의 죄 (11)

환수 시 사탄을 사귀는 죄

환수	...에
영혼	을 사귀는 죄
환수	는 사귀는 죄인가?
영혼	의?
환수	아저씨...

환수하는 죄는 아니다. 사탄을 사귀는 죄

환수	...에
영혼	그것을 사귀는 죄
환수	(환수를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인가?)
영혼	(영혼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인가?)
환수	아저씨... 내가 사귀는 죄인가?
영혼	아니 네가 사귀는 죄인가?

영혼이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환수하는 죄는 아니다.

89. 파종소 (아침) (11)

환수가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그 환수하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이어서 죽은 영혼이 사탄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미전 영혼은 사탄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미전이 파종소 영혼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11)

미전의 영혼이 사탄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영혼이 사탄을 사귀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환수하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환수하는 죄는 사탄을 사귀는 죄는 아니다.

88. 누스 옴파쉴 (밤)

환수 ~ 아저씨

한수는 램없이 램의힘으로 간다.

코치 한수야, 생각보다 좋은데 연습은 해야겠다.

한수는 힘겨워 한다.

힘을으로 램승점에 도착하는 한수. 코치가 기록을 확인한다.

한수는 다른 수영 선수들이랑 물살을 가른다.

91. 학교 수영장. (낮)

영환 (한수를 푸~~~)

한수 너도 가능성 없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 수영해야 되는 게 속상하지?

영환 대학가면 다들 거 할려구. 권이 가지

한수 수영 하고 다들 거 하면 되잖아

영환 내가 더 열심히하는데 너보다 항상 느리다.

영환과 한수는 대문 밖에 있고 영환과 한수는 마루에 쫓겨앉아 있다.

코치의 손가락에 눈물이 그림그린다.

나를해가 계약 만기야. 좋은 성적 못 내면 재계약하기 힘들지.

가난한 집에서 나 대표선수로서 키우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코치 치매 걸린 영마, 영 돌 .. 우리집에서 다 나만 보고 있다.

영환과 영환이 대문 밖에 있고 코치와 한수는 마루에 쫓겨앉아 있다.

영환 (관찰할 웃으며) 어떻게 알았어?

한수 선생님께서 찾아 족었죠?

영환 예전에 지금 나와고 똑같이 물어본 학생 있었거든? 어떻게 됐는지 물어?

한수 선생님께서 됐어요?

영환 힘들지?

한수 ...

영마 치포비에게 보태고... 교장선생님도 너 공을몰하는 거에 관 심한다

영환 (울투 내리며) 이거 학교 선생님을하고 학생들이 선은 무공은 거야

한수 ...

영환 어머니도 볼 영영으로 간다니까 왜?

박코치와 영환이 대문 밖에 있고 영환과 한수는 마루에 쫓겨앉아 있다.

코치 한수야.. 오랜만에 기록 좀 재 보자.

96. 허균 - 모처

컷들이 들려진 얼마 전대 앞에 한수는 서 있다.  
천계를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한수는 손가락을 얼마가 흔들하는 목의 끝부분을 막아준다.  
잠시 후, 엄마는 기침을 하며 가래가 들뜨 들뜨 밖으로 뱉어 나온다.

95. 범천

한수는 계단을 천천히 오른다.  
한수의 영혼은 복잡하다.  
한수는 손에는 천계가 들려져 있다.  
한수가 지나간 계단의 유리창 밖으로 먼 듯 먼 하나가 튀고 있다.

94. 임원석 계단

미진이 손을 흔들며 영혼을 나른다.  
한수는 미진을 뚫고러미 보다가 영마의 영원한 줄 아래 화근으로 간다.  
화단에서 원가를 찾는 한수.  
드디어 관복 아래에서 천계를 하나 꺼내 든다.  
미진이 버린 천계다.

93. 포비 양 - 임원석 아래 화단

미진      영원비 정사하려고 온 거야.  
한수      나.. 누나 봤다  
미진      ..나도 봤어  
한수      ...  
미진      편의점에서... (웃는다)  
한수      (마음속 소리) 영원비에서 마지막 부 밑에... (소리) 응.. 편의점에서

한수는 미진과 마주친다.

92. 영원 포비 (낮) (B1)

후래쉬 빛 가능 채우는 2래원 면지를  
환수는 잔동사나를 들고 잔자 하나를 받관한다.

면지 (방에서 지켜보며) 원대?

환수가 다량원 안에서 후래쉬를 들고 잔동사나를 들고 있다.

99. 환수의 잔 다량원 (낙)

환수	아나...
면지	뭐 찾아?
환수	(근) 그...
면지	뭐해?

면지 (방에서 보고 있던 면지)  
환수 (아나...)  
면지 (아나...)  
환수 (근) 그...  
면지 (뭐해?)

98. 환수내 잔 창고 안 (낙)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97. 문 (담)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환수 (환수내 잔 창고 안)  
면지 (환수내 잔 창고 안)

102. 인화의 잔 품

한수가 울던 표정을 건넜다.  
한수가 울던 표정에서 누군가 한수를 부른다. 민지가.  
인화도 그녀의 무릎에서 일어나서 한 품 안고 있고 뒷좌석의 민지가 한수에게 손을 흔들는다.  
한수는 민지를 외면한 채 인화를 보고, 인화는 한수를 외면하는 뿐이다.

101. 울던 표정 (박)

인화가 보고 있다.

민지                    (웃속함은) 내 기억. 오래 간직하면 피곤하니까  
한수                    ...  
민지                    (물려주며) 나중에 용서 받을 때 내 마음을 함께 봐줘  
민지                    부서지면 안 되겠지? 다시 얻을 수가 없을 테니까.

한수, 조금 응축스럽지만 물끄러미 본다.  
내 치려는 동작.

민지 한수의 상자를 뺏아 읽어서 머리 위로 치켜 올린다.

한수                    (자물쇠를 자세히 보며) 열쇠가 없는데...  
민지                    아서 읽어 봐 공근하다.  
한수                    아직 몰라

상자를 귀에 대고 울어 보는 한수.

민지                    그 안에 뭐 있었는디.  
한수                    보물상자...

웃소매로 민지를 끌어 내자 하얀 끈끼리 공양의 자개가 보인다.  
누이 큰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상자.  
민지도 옆에 앉아 있다.  
마루에 권타앉아 민지 뺏아 상자를 물끄러미 보는 한수.

100. 마루

상자를 들고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한수.

저항하지 않는 민지를 가만히 안고 있던 용기는 형어선다. 공 립을 되돌아간다. 늦게 옷매무새를 추스르며 나중 민지가 용기의 뒷모습을 보다가 따라간다. 민지가 따라오는 것을 모르는 용기의 발걸음은 빨라진다. 민지는 용기를 쫓아온 듯 따라가지만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진다. 용기를 멈추고 보던 민지, 뒤돌아서 큰다.

용기 : 가만있어. 가만있으면 좋아. 널 강간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한 번 안고 싶었어. 안고만 있을 거란 말이야.

민지가 민지를 안고 쫓아오려고 안간힘이다. 민지가 뛰어가 민지를 잡고 큰대함으로써 쓰러진다. 민지가 민지를 돌려 놓으려 할 땐 용기 박차친다. 저 땅에 용기가 서 있다. 큰대란 사이로 단 립을 민지가 산책하다가 멈춘다.

104. 요양원 근처 큰대란

버스에 탄 용기를 배웅하는 한수. 손을 흔들는다.

103. 버스 터미널

용기 : 여기 민지네 집 아니냐?  
 한수 : ... 했는데...  
 용기 : 민지 요즘 여기 있어?  
 한수 : 아니.  
 용기 : 아직도 요양원에 있냐?  
 한수 : 너 소년원에서 나왔지?  
 용기 : (황급 웃으며 손으로 V 자를 그린다) 무법해. 특별 2박 3일.  
 내 얘기 들었구나? 민지가 나에 대해 말했어?  
 한수 : 강간한 거 아니라며 왜 틀어졌어?  
 용기 : 민지가 그 얘기도 했어? ... 어떤 게 밝혀지면 민지가 곤란해지잖아  
 사장이 위대한거다 너.

한수가 뒤돌아본다.

용기 : 처기...

어느 학생(용기)이 인희의 전 평을 기웃거린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지나치는 한수를 용기가 부른다.



이 이야기를 마친 한수는 밖으로 나간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오는 한수.  
 커튼을 치고 엄마의 옷을 벗겨낸다.  
 목, 뺨, 가슴, 허리... 카메라의 포착은 적당히 관능적이다.  
 복욕시키던 한수는 엄마의 그곳이 보고 싶다.  
 한수는 참지 못하고 엄마의 소변줄이 끼여진 그곳을 자세히 본다.

한수  
 주소대로 아버지 찾아 가서 만났어.  
 처음 복왔는데 반가워 하시더라. 나한테 되게 잘 해 줬고,  
 엄마 걱정 많이 하셨어.  
 아버지 다시 오기 전에 엄마 깨어났으면 좋겠다.

109. 변원

한수는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

- 한수가 벽에 붙은 엄마의 유언장을 탁! 떨어낸다.

화장실 변기에 한수는 어항물을 쏟는다.  
 물과 함께 떨어져 나온 글자는 변기 속에서 평화롭게 녹는다.  
 보던 한수는 동약범의 마개를 연다.  
 한수는 남은 동약을 변기에 붓는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한수는 물레바퀴를 당긴다.  
 수동틀이기가 원며 물과 함께 내려가는 글자여.

108. 화장실 (밤)

한수는 어항물을 들고 나간다. 곧 한수는 다시 틀어와  
 사 위에 복어죽을 녹여 먹이를 함께 들고 나간다.

107. 한수의 집 안 밤 (밤)

인화가 큰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고  
 ... 어디선가 나타나는 목소리가 한수쪽으로 빠르게 접근한다.  
 - 복어죽이 든 욕조의 한수...를 인화가 흥분하고 있다.  
 - 잔 피도가 모래 위의 큰새를 흉고 지나간다.



117. 변신

한수는 영마의 무연장을 주머니에서 꺼내 건네준다.

아버지                    내 주소는 어떻게 했는지?

아버지는 다시 영마를 뚫어 물어본다.

한수                    누를 뚫어 물어보았어?

아버지                    언제?

한수                    약을 마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쩌다 이렇게 되셨는지?

한수                    권한수요.

아버지                    이름이 뭐니?

의식이 없는 영마 앞에서 아버지는 한수에게 이것저것 묻는다.

116. 변신 (박)

한수는 아버지 영혼을 보다가 최지은 듯 고개를 숙인다.

아버지가 돌아선다.

한수                    아버지...

한수를 따라가다가,

한수는 아버지 뒤를 따라간다.

배웅한다.

잠시 후 대공이 영리며 아버지 나가 나온다. 아내와 초등학생 둘이서 한수가

한수는 아직 그 집 앞에 있다.

115. 대도시 주택가. (아침)

아버지는 주변을 의식치 않고 안으로 들어간다.

아버지                    (초인중에 대고) 응... 아빠

한수의 아버지인 것이다.

인희 (뿌리치며) 이리저리 소리 지를 거야  
관수 (종며 걱정으로 곧 애원한다) 제발, 제발요... 들어가게 해 주세요. 들어가자

관수는 무릎 꿇고 다가가 인희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는다.

인희 안돼 관수야, 여기서 나가 줘  
관수 제발요... 제발, 나가 들어가고 싶어요..

관수는 무릎 꿇고 빈다.

관수 제발요..

관수는 인희 앞으로 걸어가 앉는다.

관수 제발요... 목소리가 들린다  
인희 관수야...

관수는 처음으로 인희의 머리를 가려주려 안으로 들어간다.  
관수는 인희를 안고 돌아온다.

120. 인희의 방

관수는 권지확인 물지서를 받아든다. 틀림없는 부자지간이다.

119. 관수의 전 마담. (밖)

그의 어깨에 붙은 머리카락...  
관수는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문래 채집한다.

아버지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 그놈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야. 사고로 이미 죽었다.

관수와 아버지는 같이 밥을 먹는다. 공복,

118. 식당

영희에 있는 관수는 유리창으로 밖의 벤치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본다.  
담배를 피던 아버지는 누군가와 휴대전화로 대화를 한다.

한수 (마음속 소리) 왜 아니라고 했을까? 특별히 부탁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과 부딪치며 거리를 막 려가는 한수

한수의 몸따위 속에 한수의 소리가 계속된다.

122. 나레이션, 몸따위 (밤)

확인하지 못했다.

뒤돌아보지 않았기에 그 사고를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끝내

차가 와서 아버지를 치인 소리인지 모른다.

소리(한수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기에 그 소리가 아버지가 차에 뛰어들어

뒤에서 큰역한 자동차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동박한 소리가 들린다.

한수는 뒤돌아서 건넌다.

유령 (음대의 플라멩코 이미지) 내고는 사라진다.

물타는 물지서를 한수는 하느님처럼 버린다. 하느님 추구치던 물지서가 어느 순간 변형

한수는 라이타로 물지서를 태운다.

아버지는 순순히 라이타를 받들었다.

한수 라이타 중...

아버지

...

한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수는 진자확인 물지서를 꺼낸다.

아버지가 돌아선다.

한수 아버지!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내 옆으로 지나간다.

한수는 전에 왔던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다린다.

121. 아버지의 잔 - 밤

한수, 계속 비명을 지르는 인형을 보고는 동작 멈췄다가 순순히 일어나 나온다.

인화가 란차기 비명을 지른다.

한수는 인화의 가랑이 사이로 머리를 뚫으려한다.

영웅 미칠 것 같아요. 제발 돌려보내주세요

한수는 체육관을 찾는다.  
 코치가 반갑게 맞는다. 영철도 좋아한다.  
 한수는 다들 친구들과 함께 출발선에 선다.  
 부처 소리와 함께 다들 힘껏 출발한다.  
 한수도 힘껏 뛰어넘는다.

124. 체육관

영마가 눈을 뜬다.

123. 병원

음대생...  
 - 카메라가 다시 전에 보여졌던 안내 표지판을 본 뒤부터 쪽 빠지면 매우 자세스럽게 보이는  
 - 피아노 건반위에 영철을 묻고 있는 유인희.  
 - 한수는 한수의 모습 stop motion-  
 - 민지가 내던진 보물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빠르게 리와인드되며 민지손으로 갖다  
 가 다시 한수에게로 건네진다.

한수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보물상자 안에는 해답이 들어 있을까

한수는 거리를 향한다.

한수  
 영마는 왜 찾아 가라고 했는지, 영마는 왜 약을 마셨는지...

- 민지가 유리창에 대고 뭐라 뭐라 얘기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유리창 반대편(그러  
 고 보니 면회실이다)에서 용기가 영에 손을 갖다 대며 쉬~~~

고속버스 측의 한수. 유리창 밖으로 풍경이 훑히 지나간다.

한수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연이 있겠지. 그 사연이 무엇일까

지하철 상행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거꾸로 뛰어 내리는 한수. 사람들과 부딪힌다.

- 장례식장. 보고 있는 한수에게서 빠르게 빠져나가면 눈물 콧물 멈춰버려 울고 있는 미진.  
 - 민지가 내려 온 보물상자가 바닥에 떨어 부서지려는 순간 cut -

어물뿐인 바다 속으로 한층 더 강한 빛이 쏟아져 내리니 빛이 비추고 있다.  
 그 빛 속으로 한수들이 와 머뭇거리다.  
 어디선가 은빛이 나타나 한수 주위에서 헤엄친다.  
 한수는 그 빛을 따라 아래로 헤엄쳐 간다.  
 저 아래 바닷속에 은빛으로 빛나는 뭔가가 있다.  
 뽕뽕하다. 한수는 뽕뽕을 듣고는 빛을 쫓고서 위로 부딪힌다.  
 한수의 몸이 바다에 떠오른다. 바다 한 가운데.  
 그 강한 빛은 은빛으로부터 온 것이다.  
 한수는 헤엄쳐 간다.  
 은빛이 가까워 온다.

125. 바다...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수를... 한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선수들이 지나간 자리에 거품이 잔뜩이  
 수영장 아래로 잠수하고 있는 한수 보인다.  
 한수는 바다의 배수구 덮개를 연다. 물이 회오리를 치며 빠져가고 있다.  
 선수들이 물 밖으로 나간다. 물 회오리에 모든 것이 빠져들고 있다.  
 한수는 태아처럼 웅크리고 뽕뽕오리에 몸을 맡긴다.  
 한수의 몸은 빠르게 회전하다가 배수구 구멍으로 사라진다.

